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모델에 관한 기초조사

-조직과 평가를 중심으로-

원 소 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 석사과정)

장 진 경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부교수)

가정문제의 해결 및 예방과 더불어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정의 복지와 사회복지 를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이 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할 건강가정지원센터 모형구성요인으로 설정한 조직·평가 사항에 대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 의견을 조사하여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관련 학계종사자와 현장종사자이다. 2004년 11월 24일 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12월 일부터 2005년 1월 15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지 443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총 221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 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21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12.0)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χ^2 과 ANOVA를 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의견은 '센터장-팀장-행정간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팀의 구성은 '교육-상담- 문화·홍보-지역연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로 홍보와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로운 가족복지서비스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 이라 해석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그 위상을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실무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석사 이상'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에게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석사 이상의 학력 기준 뿐 아니라 향후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건강 가정사업에 맡게 될 건강가정사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셋째, 건강가정사업의 평 가에 관한 의견에서는 평가의 주체는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한다'가 많았고, 평가 성과에 따른 반영 정도 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정부 보조금 차등지급'이 많았다. 평가지표 영역에 따른 학계와 현장의 차이 는 프로그램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계 종사자가 현장 종사자보다 평가에 프로그램운영 영역 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적 극적인 관심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주체기 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와 질적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